

여자축구 국가대표 임은주씨

‘체육’이라는 우물을 깊고 넓게 파고 싶은 끝없는 욕심이 그녀를 여자축구 국가대표선수로까지 만들었다.

국민학교 입학전 코흘리개 시절엔 태권도 공인 3품(단)을 따낸 ‘태권소녀’였고 국민학교 시절엔 육상선수, 여중(세화여중) 시절엔 배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인천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필드하키 선수로 기량을 발휘, 상비군으로 뽑혔다.

고 싶기 때문이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루 4시간반씩 3개월 예정으로 기초체력 훈련과 공치고 달리기 등 축구공과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축구선수’를 처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축소한 인조잔디구장에서 주로 훈련하는데 아직은 남중학생들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료 모두가 한국 여

한 뒤 사회적인 어려움이 없었다.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 졸업전 사회진출에 대비해 가능한 많은 자격증을 따냈다(그녀는 현재 교사·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인명구조원 자격증 등 7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사회진출의 문이 넓지는 않았다. 사회체육센터에 입사해 한강 보트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했으나 내가 각종 자격증을 따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하면 보람이 크지 않았다.

—‘엘리트 체육의 선수’로 있

축구로 꽃피우는 ‘태권소녀’의 꿈

청주사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서는 필드하키 주니어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활약했고 대학 졸업 뒤에는 사회체육에 눈을 돌려 인명구조원(한국사회체육센터)으로 ‘체육인생’의 폭을 넓혔다.

지난달 18일부터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목표로 합숙훈련에 들어간 25명의 여자축구 국가대표선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임은주(25)씨는 축구 소질도 뛰어나 남자선수 3명 정도는 거뜬히 제칠 수 있는 날렵한 발재간을 갖고 있다.



다가 ‘사회체육 지도자’로 변신한 뒤 느낀 점은.

=정부에서 서울올림픽 뒤 사회체육 부문에 투자한다고는 하나 사회체육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아직도 자가용 있고 여유 시간이 있는 부유층이나 사회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엘리트체육에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을 버리고 사회체육 시설의 확충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체육센터에 있으면서 여자소프트볼 팀을 창단하는 등

육상·배구·필드하키등 ‘체육인생’ 25년

“여자축구 사회체육으로 기반 잡겠어요”

흔히 체육특기자가 대학 졸업 뒤 운동을 그만 두면 사회적인 어려움이 현실에서 임씨는 ‘체육’을 평생의 직업으로 알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돋보이고 있다.

—여자축구 선수는 왜 됐나.

=지난 85년 축구협회가 처음 여자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도 감독에 의해 뽑혔으나 대학에 진학하려고 포기했었다. 축구가 좋았고,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자축구를 사회체육에 접목시키

자축구의 선구자라는 자부심과 투지가 대단하다.

—생소한 여자축구가 한국에서 얼마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보나.

=일단 팀이 많이 생겨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팀을 창단해 어릴 때부터 축구공에 익숙해지면 세계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많은 여자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하나 용기가 없고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

—체육특기자로 대학을 졸업

여성체육의 확산에 노력했다. 이제는 여자축구 국가대표선수로 좋은 성적을 내고 다시 사회체육 분야로 돌아와 여자축구의 보급에 노력하겠다.

대학 졸업후 1년간의 공백으로 선수로서의 체력이 격정된다. 임씨는 여자축구 대표팀에서 공격수를 하고 싶으나 필드하키 시절의 수문장 경험을 살려 수비수를 맡으면 ‘철벽 수비’를 할 것이라고 밝게 웃었다.

〈이길우 기자〉